활자 사라지고 해체된 신문이 던지는 질문

이지현의 '드리밍 페이퍼'
신문지 파편처럼 만든 뒤
새롭고 낯선 오브제 제작
외양만 남은 신문의 얼굴

이지현의 '021FE2408' (2021).

책을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진을 볼 수 없다면,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면. 이지현 작가의 작업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됐다. 익숙하게 여겼던 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고 그것을 시각예술로 풀어냈다.

이번에 그가 고른 소재는 신문(지)이다. 지금 여기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오래된 종이 매체를 가져와 잘게 뜯어낸 뒤 새로운 오브제로 탄생시켰다. 지난 6일부터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드리밍 페이퍼(Dreaming paper)'에 그 결과물이 담겼다.

이 작가가 바라보는 신문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우리 시대의 스토리이자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하지만 "사실이든 허구든 그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에 공감해오며 살아왔다"는 작가의 말에선 때로 '팩트'가 흔들리는 이즈음 신문의 위상이 읽힌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구문'이 되어버리는 신문을 조각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파편처럼 해체한 뒤 신문의 모양을 유지하는 작업을 행했다. 이때 광택이 있는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도료인 바니시 등을 칠하고 얇은 와이어 구조물을 썼다. 작가가 신문 한 쪽을 해체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일가량이다. 그는 이 전시를 위해 100여 장의 신문지를 썼고, 입체 작품 25점을 제작했다.

관람객들은 외양만 남아 열독이 어려운 신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신문이 없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일까, 낯설지만 흥미로운 미적 예술품의 등장에 대한 반가움일까.

이 작가는 중앙대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횟수만 46회에 이른다. 2017년 제주도립미술관 '물때, 해녀의 시간', 2018년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전 등에 참여했다. 매일미술대전 대상(1995),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1996), 인사미술제 인사미술 대상(2007) 등을 수상했다. 현재 담소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로 제주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는 이달 12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볼까요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
내달부터 해녀문화 사업

제주의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녀문화 사업을 제주 일원에서 펼친다.

올해 4년째 추진되는 해녀문화 사업은 '지꺼지게 놀아봅주! 제주해녀문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주해녀와 1박2일 살아봅써', '찾아가는 해녀문화축제', 창작극 '해녀불턱 이야기', '왕 봅써! 해녀문화 탐방' 등 4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봅써'는 외국인·다문화·관광객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녀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휴먼투어리즘'으로 해녀밥상 만들어 보기, 해녀물질 배우기, 해녀와 밭농사 체험하기 등이 예정됐다.

'찾아가는 해녀문화축제'는 전국섬주민협의회(회장 이정호)와 공동 운영된다. 도내 5개 섬과 전국 유인도를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해녀 문화를 알리는 공연과 체험 행사를 이어간다.

창작극 '해녀불턱 이야기'는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뭍으로 올라와 옷을 말리거나 몸을 녹이던 불턱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왕 봅써! 해녀문화 탐방'은 이달 15일부터 해녀문화 전담 여행사인 미로항공여행사(대표 양은화)와 연계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한다.

안정업 이사장은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녀문화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재청상을 수상했다"며 "올해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녀문화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10-8855-1481.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돌문화공원 사진 공모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개원 15주년 기념 '돌문화공원 전국 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돌문화공원이 품고 있는 다양한 풍경을 사진에 담아 누구나 한번은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2019년 이후 제주돌문화공원의 풍경, 축제 등을 주제로 사진 작품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다. 입상작은 돌문화공원 개원 15주년이 되는 6월 중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고 향후 홍보 사진첩, 홈페이지 게재 등에 활용된다. 문의 710-7486.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서귀포예술의전당의 '통통튀는 아트데이 인 서귀포'가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4월 '뮤직밴드 콘서트-홍조밴드·홍어밴드', 5월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시리즈 3-코끼리왕 바바', 6월 제주 광개토예술단의 '제주 오복락락(樂樂)', 7월 제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꿈', 8월 제주 작곡가 안현순이 해설하는 '교과서로 만나는 클래식', 10월 클래시칸 앙상블의 '클로드 모네의 음악적 영감'으로 이어진다.

지역 생활사 기록가 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과 함께 이달 19일까지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할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하고 있다.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아카이빙)' 사업은 지역 생활사와 미시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선발 인원은 총 150명으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한다. 신청서는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전화 070-8200-9003, www.archivingnet.org/wp/dglife)을 통해 접수한다.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모집

올해부터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이달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강원권·경상권·충청권·전라제주권)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의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학진흥원 누리집 참고.

고재만의 제주어 갬ᄒᆞᆫ판 <24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좀녜 ᄀᆞᆯ았저, "우멩아, 이 마리레 왕 누님 ᄌᆞᆺ디 고붓이 앚앙 이왁 잘 들으라."
우멩이 ᄀᆞᆯ멘, "예. 누님, 고붓이 앚앙 이왁 잘 들으쿠다."
하르바지 ᄀᆞᆯ멘. "아으덜아. 엿날 이왁 ᄒᆞ여주켜. 제주엔 엿날부떠 사름덜이 살아가멍 그 소곱서 나온 이왁덜이 싯저."
좀녜 ᄀᆞᆯ았저, "게민 경ᄒᆞᆫ 이왁덜이 하영 이시쿠다양?"
하르바지 ᄀᆞᆯ멘. "기여, 하영 싯저. 천지개벽, 설문대할망, 삼성신화엥 ᄒᆞ는 것덜이영 하영 싯주. 게민 이제부떠 이왁 ᄒᆞ여주마.
ᄆᆞᆫ첨 '가문장아기' 렝 ᄒᆞ는 신화 이왁일 ᄒᆞ여주켜.

*** 제주어 풀이**

*마리레 왕 : 마루로 와서.
*ᄌᆞᆺ디(저깻,저껏,저끗) : <이름>곁 또는 가까운 곳.
*고붓이 : <어찌> 머리를 숙이고 다소곳하게.
*앚앙 이왁 잘 들으라 : 앉아서 이야기를 잘 들어라.
*엿날 이왁 ᄒᆞ여주켜 : 옛날 이야기를 해 줄게.
*엿날부떠 : 옛날부터. *사름덜 : 사람들. *살아가멍 : 살아가면서.
*소곱(속, 솝, 쏘곱, 쏙, 숲) : <이름> 속. 안.
*하영 이시쿠다양? : 많이 있겠네요.
*하영 싯저 : 많아. *이왁 ᄒᆞ여주마 : 이야기해 주지.
*ᄆᆞᆫ첨(ᄆᆞ녀, ᄆᆞ녜, ᄆᆞᆫ저, ᄆᆞᆫ저, ᄆᆞᆫ제, 모녀, 모녜, 몬저, 몬처, 몬첨) : <어찌> 먼저
*'가문장아기' 렝 ᄒᆞ는 : '가문장아기'라는.

고재만 화백

제주 플루티스트 강지연 첫 독주회

제주 출신 플루티스트 강지연(사진)씨가 첫 독주회를 연다. 이달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이 그 무대다.

이날 독주회에서 강씨는 바흐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타나 E 장조', 코플랜드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듀오', 에네스코의 '칸타빌레와 프레스토', 프로코피예프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 장조'를 연주한다. 피아노는 제주대 음악학부를 졸업하고 실내악 연주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기림씨가 맡는다.

강씨는 단국대학교 기악과, 동대학원 관현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영산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 음악춘추콩쿠르, 성신여대콩쿠르, 한음음악콩쿠르, 한예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제주준앙상블, 제주플루티스트 앙상블 단원이자 제주서부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그랜드오케스트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선희기자